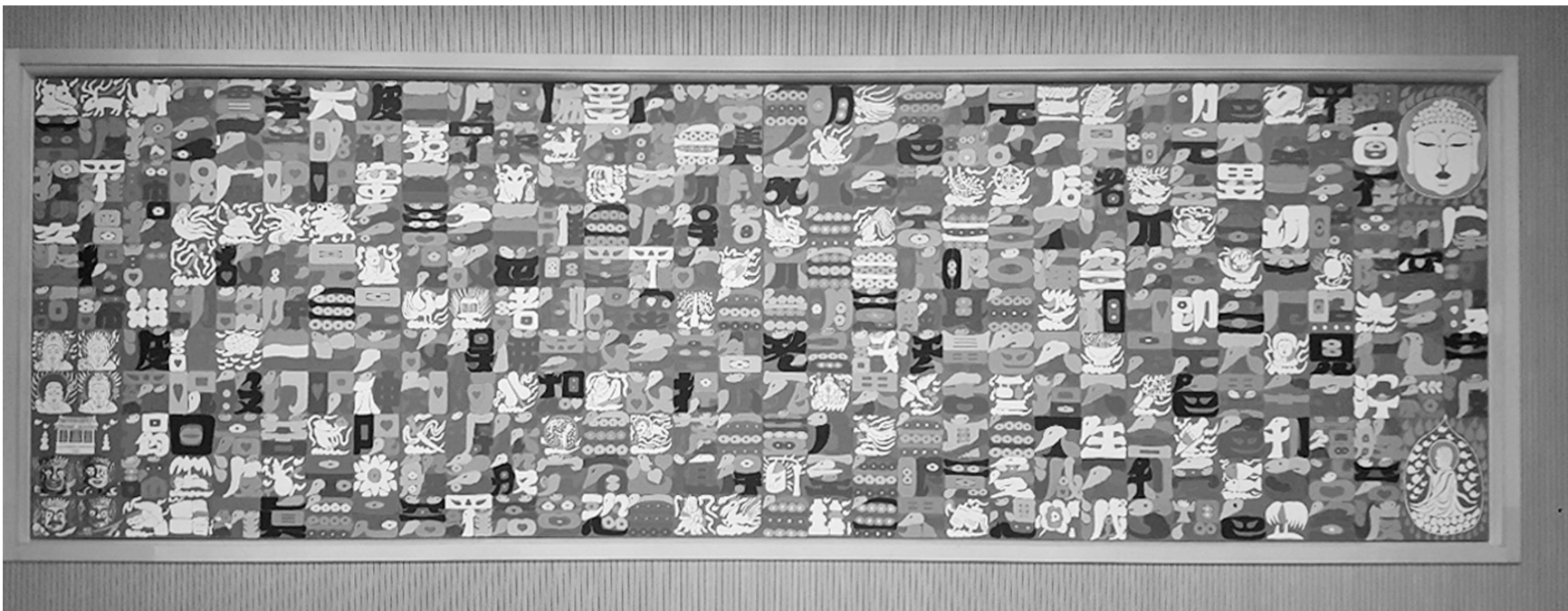




'천수천안관음보살도'



'반아심경'

가족과 평면분할... 49재 맞아 ‘회화정신’ 기린다

황영성 화백 49재 추모 기획전 13일부터 무각사

로터스아트스페이스 재가동 첫 전시 83점 선보

‘2026 광주비엔날레’ 인니 등 파빌리온 공간 활용

광주 도심 사찰에 자리하면서 도시민들의 문화적 향유에 앞장서온 무각사 내 로터스아트스페이스(구 로터스갤러리)가 2023년 12월 문을 닫은 지 27개월만에 다시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전시에 들어간다. 로터스아트스페이스가 다시 가동을 하기로 한 계기는 올해 진행을 앞두고 있는 ‘2026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프로젝트(인니 국가관·네덜란드 문화기관 1646 국가관) 공간으로 선정, 전시를 열기로 하면서다.

미술계 인파에 이미 파빌리온 전시 공간으로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로터스아트스페이스 재가동은 기정 사실화됐다. 로터스아트스페이스는 2010년 5월부터 2023년까지 운영하면서 굵직한 기획전 등 각종 전시와 신인발굴에 힘을 쏟았다.

로터스아트스페이스가 다시 가동을 위한 첫 전시로 지난해 12월 27일 별세한 황영성 화백(1941~2025·전 조선대 교수) 추모기획전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은 49재(2월 13일)를 맞이해 진행하는 자리로 한국현대미술의 거장이자 ‘가족의 화가’로 불리는 황 화백의 삶과 송고한 미술정신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이번 전시에서는 무각사 설법전에 봉안된 대형작품인 ‘반아심경’과 수안당에 봉안된 ‘천수천안관음보살도’를 망라해 아직 한번도 공개하지 않은 미공개 작품까지 무각사와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다양한 작품들로 구성해 꾸밀 예정이다.

특히 생전에 베풀어온 공덕을 치하하고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이번 전시의 목적으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가족’과 ‘소’, ‘고향’이라는 메시지가 투영된 작품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관람객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황 화백은 형태를 단순화시켜 하나의 구성적인 가족도를 구축해 독특한 회화세계를 발현, 화단의 일단 주목을 받은 가운데 사각형의 화면을 평면 분할한 화풍으로 구성,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으며 단박에 화단 중심으로 부각되는 등 서양화단의 거목 반열에 올랐다.

아울러 평면분할된 사각형에는 물고기와 새, 집, 여자, 눈 등이 축소 배치돼 안정감과 다양한 스토리를 구현해냈다. 이를테면 하나의 이미지가 개체이면서 전체가 되고, 수많은 전체가 또다시 하나가 되는 순환고리가 매우 경쾌하고 리드미컬하게 표현돼 흥미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형식적 다양성은 물론 내용적 깊이까지 더해졌다.

가족은 소박한 시골집 가족에서부터 대자원의 못 생명들로 확대되고 마침내 세상 만물의 공생을 담은 ‘우주 가족’으로까지 확장됐다. 초창기 소와 가족, 마을, 개울, 들판, 외양간, 초가집 등 서정적이

고 목가적이며 향토적인 소재가 주류를 이뤘다.

황 화백은 2021년 4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소와 가족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초대전을 로터스아트스페이스에서 연 바 있다.

당시 황 화백은 초대의 글에서 “1970년대 저는 초가집과 그 속의 가족과 소의 이야기로 작업을 시작했고, 우리 가족과 마을, 우리나라 등의 가족 이야기를 소재로 작업을 해 왔다. 1990년 1년간 아메리카 인디언의 생활과 거주와 과정을 연구하고 스케치하며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을 만나보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과 동물, 식물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사물들에 하나의 가족이라는 의미로 확대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인이 광주시립미술관 관장으로 재직할 무렵 같이 근무했던 장경화 광주문화재단 이사(문학박사)는 평론에서 “황 화백의 예술은 남도라는 지역에서 70여년을 미적 정서 속에 혼련되어져 왔다. 이후 점차 확장된 자기 세계관을 바탕으로 독자성을 확보한 남도적 화면구성과 다양한 미학어법의 향토적 서정성은 형상 하나 하나에 투박함과 고졸함이 얹혀지나 화면의 전체적인 구성은 세련된 현대적 이

미지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한때 자본과 현대미술의 달콤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소처럼 근면하고 순박하게 자기미학을 탐구해왔다. 이제 그의 예술은 종교가 돼 평면에서 공간으로, 이미지에서 문자로 모든 세상사의 이념과 경계를 넘나 들고 있다”고 평했다.

로터스아트스페이스 관계자는 “다시 문을 열게 된 만큼 좋은 전시로 찾아뵙길”이라면서 “이번 황영성 화백의 추모전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직접 사찰을 찾아 미술대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무더진 감성을 다독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로터스아트스페이스는 그동안 기획전과 초대전, 개인전, 예비작가 배출을 위한 신인작가전(7회) 등 총 80여회에 이르는 전시를 소화, 지역 미술발전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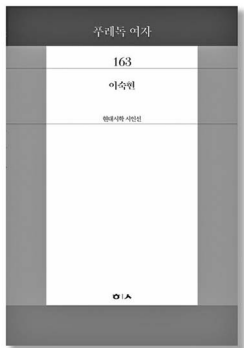
전시는 13일 개막, 오는 3월 31일까지 로터스아트스페이스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출품작은 ‘천수천안관음보살도’를 포함한 12점과 ‘반아심경’ 및 관련 삽화 71점 등 총 83점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아픈 시간들, 시어로 모나지 않게 다듬기

이숙현 두번째 시집 ‘푸레독 여자’ 출간

결핍·추위와 맞서 얻어낸 삶 본질 탐색



광주 출생 이숙현 시인이 두번째 시집 ‘푸레독 여자’를 현대시학 시인전 163번째 권으로 최근 펴냈다. 이번 시집은 지난 2012년 발간했던 첫 시집 ‘영산전이 생생하다’ 출간 이후 13년만에 선보이는 것으로, 그동안 시인이 살아온 시간을 위시로 축적이 투영돼 있다. 몸과 마음, 아니 삶이 많이 어렸던 탓으로 그의 시쓰기는 더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운 형국에 빠져 들었다. 투병생활을 해야 했기에 근원적 생명에 대한 제문제들이 놓여 있을 뿐 문학적 사유나 감수성을 헤쳐 긴 시간들을 끌고 나오기는 어려웠을 법하다. 하지만 그는 아픈 시간들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 하루로 버리지 않고, 모난 것은 다듬었다. 또 너무 등그레해서 손으로 잡기 어려운 것들은 표식을 하거나 잡을만한 꼬투리를 만들었다. 이 시집이 그 표식이자 꼬투리인 셈이다.

그의 시는 아프지 않고는 걸려낼 수 없는 삶의 찌꺼기들이 군데 군데 붙어난다. 그러면서 근원적

인 삶의 본질에 대해 묻는다. ‘부럽다’ 같은 시가 대표작으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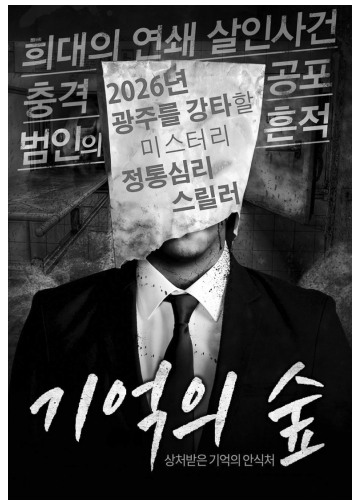
시인은 ‘누군가 생은 가까워서 보면 비극/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던데//키득의 오래된 친구 중/갈수록 희극으로 사는 여자를 본다//사는 게 고만고만/속사정 알면 공평하다 싶다가도//속물 없는 재능을/넘집 없이 드러내는 그 여자가 부럽다//결핍도 추위도 모르면서/어디서 오복의 비법을 터득했는지//은기를 나누고 얻는/자족의 웃은 일찍도 입어//웅이 하나 없을 그 여자를 보며/순백색 부럽다를 중얼거린다//한점을 실종됐다가 찾은 말이다’라고 노래한다.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비슷하다. 상처받은 사람 없고, 성한 가족 드물다고 했다. 어차피 고상한 척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쉽지 않게 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나 말 못할 ‘속사정’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터다. 시인이 부러워 하는 대상은 결핍이나 추위와 맞서 얻어낸 오복과 은기를 말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대물림되거나 행운으로만 점철된 삶이 어디 근원적 삶의 본질을 터득하며 나아갈 수 없는 이치처럼 말이다.

시집 표제가 된 ‘푸레독 여자’는 제2부 첫번째 작품으로 수록돼 있다. 푸레독은 유약없이 굽다가 마지막 날 굶은 소금을 뿌려 완성하는 웅이다. 삶 중 웅기처럼 깨어지지 않을 것은 없다. 결국 모두 깨어질 수 밖에 없다. 유약없이 굽다가 깨어지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뜨거운 불구덩에서 몸서리를 칠을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 슬퍼진다. 시인의 삶은 불구덩이같은 곳에 내던졌다가 겨우 탈출해온 기분이 아닐까 싶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분주한 일상 틈틈이 창작한 57편의 시작품이 실렸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이열치열’ 한파 속 추위 잊게할 오싹한 연극

‘기억의 숲’ 15일까지·‘701호’ 20일부터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

한겨울 냉기를 등에 업고 등골을 서늘하게 할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상무지구 기분좋은극장이 정통심리 스릴러와 코믹범죄스릴러 연극을 잇따라 선보이는 것.

먼저 연극 ‘기억의 숲’은 오는 15일까지 관객들을 만난다. 어둡고 칙칙한 취조실에 정신과 의사와 희대의 살인마가 마주 앉으며 극이 시작된다. 17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마치 영안실에 시체를 안치하듯, 자신의 지하실 창고 사물함에 시체를 보관한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어린 시절, 학대와 방임으로 앓아한 유아기를 보낸 살인마의 정신상태가 이뤄지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에 다가간다.

‘기억의 숲’은 연극 ‘흥터’ 제작진의 기억 3부작 중 두번째 작품으로, 총총히 짜인 극본과 탄탄한 연출이 돋보인다. 어두운 조명이 낮게 깔린 무대와 점층적인 음향 효과, 치밀한 심리 변화의 과정을 그린 배우들의 연기 등 스토리, 연출, 연기가 어우러져 정통 심리 스릴러의 진수를 선사한다.

의사는 배진범·석봉준·윤민혁·전청일, 엄마는 김경란·박민서·오수빈·이다현, 아들은 강

홍중·박태현·윤필호 배우가 각각 맡는다.

공연은 화~금 오후 7시30분, 토 오후 3~6시, 일 오후 2~5시. 입장료는 2만원~4만원.

또 지난 2024년 3월 초연 이후 업그레이드돼 돌아온 ‘701호’는 오는 20일부터 3월29일까지 진행된다. 극은 신혼부부인 진석과 아린이 이끈다. 고아인 진석에게 아내 아린은 유일한 가족이다. 월요일 새벽 6시에 초인종이 울리고, 집 앞에 토막 시체가 배달된다. 시체를 갖고 경찰서에 가던 중 교통사고가 나고 아린이 납치되는 협박을 받는다.

무대를 본 관객들은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에 시간가는 줄 모르게 봤다고 평했다.

진석은 윤도·이은호·정영성, 아린은 강사라·박주희·현경아, 형사는 김찬우·신용반·이준희, 이웃은 김부연·김지수·박민지가 각각 맡아 열연을 펼친다.

공연은 화~금 오후 7시30분, 토·일, 공휴일(3월2일) 오후 2~5시, 3월3일 공연 없음. 입장료는 2만원~4만원. 정채경 기자 view2018@

대형망원경으로 보는 정월대보름 개기월식·레드문

광주과학관, 19일부터 접수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오는 3월 3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특별전문행사 ‘정월대보름 개기월식’을 진행한다.

정월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 한해의 첫 보름을 기념하는 전통 명절이다. 올해 정월대보름은 양력 3월 3일로, 이날 개기월식이 함께 일어나 그 어

느 해보다 이색적인 대보름이 될 전망이다.

월식은 태양과 지구, 달이 나란히 놓이면서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이 가운데 달이 지구의 본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경우를 개기월식이라고 하며, 달 표면에 지구의 둥근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이번 월식은 3월 3일 오후 5시 44분 반영월식으로 시작해, 오후 8시 33분경 가장 크게 나타나며, 밤 11시 23분경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달이 지구

의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 단계(오후 8시 4분부터 9시 2분까지)에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햇빛의 영향으로 달이 붉게 보이는 ‘붉은달(레드문)’을 감상할 수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천체투영관에서 특별 해설 프로그램 ‘우주에서 보는 월식’을 통해 월식의 원리를 알아보고, 별빛천문대의 구경 1.2m 대형 망원경을 비롯한 다양한 천체망원경으로 월식의 전 과정을 직접 관측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국립광주과학관 누리집(www.sciencecenter.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하면 된다. 정채경 기자 view2018@